

역사는 미래다 군산은 역사다

1930

1930년대로 떠나는 군산 시간여행

전북

2시간을 투자해 일제강점기인 1930년 시대 모습부터 2016년 현재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타임머신이 전북 군산시에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인문도시인 군산시는 일제강점기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군산 원도심을 '1930년대로 떠나는 군산 시간여행'을 테마로 정비해, 근현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명할 수 있는 교육역사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군산 원도심 재생은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경관대상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4년 유엔 해비타트,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가 주관한 '아시아 도시경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제 수탈의 아픔과 경제발전의 변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군산 근대역사문화화를 찾아 193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근대역사박물관·조선은행·일본식 가옥·사찰 등 일제강점기 흔적 원도심 교육역사문화 벨트 조성

근대역사박물관

선사~현대 해양물류역사관
옛 건물 복원 근대생활관
3·1만세 운동 등 역사 연구
시민 기부 등 유물 7천여점 보유

조선은행 군산지점

일제 곡물 반출·토지 강매
채만식 소설 '탁류' 배경

진포해양테마공원 위봉함

4200톤급 군함 내부 전시

◇시간여행 출발, 근대역사박물관... 인근에 일제강점기 건축물 이어져

군산의 근대역사문화는 근대역사박물관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근대 건축물들과 벨트를 형성해 원도심으로 이어진다.

지난 2011년 9월30일 개관한 박물관은 개관 이후 매년 외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현재까지 2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등록공립박물관 2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에서 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됐다.

월 평균 2만~3만 명이 방문하는 근대역사박물관은 총 182억이 투입해 원도심 지역인 월명동 부지 8347㎡에 건물 연면적 424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해양물류역사관(509㎡), 어린이체험관(126㎡), 근대생활관(617㎡), 기획전시실(231㎡)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유 유물은 7000여점으로 이중 각계 각층의 시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유물이 3000점을 넘어 선다.

해양물류역사관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서해안 물류중심지로 자리 잡은 군산항의 역사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다.

근대생활관은 '1930년대 시간여행'을 주제로 당시 내항과 부잔교(뜬다리), 인력거차방, 영명학교 등 1930년대 건물을 실제 크기로 복원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배우로 나서 근대 군산을 배경으로 소설 '탁류'의 미두장 앞 정주사 장면, 소설 '아리랑'의 부둣가 노동자의 삶과 쌀 수탈 장면, 군산 영명학교와 3·1만세운동 등을 연극화 해 선보이고 있다. 또한 살아있는 박물관 연극 공연도 병행, 생전 이영춘 박사의 삶과 일제강점기 실존했던 독립운동 학생을 주인공으로 공연을 진행하면서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군산의 역사와 문화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근대역사박물관 관람이 끝나면 일제강점기 한국과 대륙의 경제수탈을 목적으로 일제에 의해 건립된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국가문화재 제374호)으로 발길을 옮겨 보자.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곡물 반출과 토지 강매를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채만식의 소설 '탁류(濁流)'에도 등장하는 곳이다.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국가문화재 제372호)을 관람하면 당시 은행이 가진 건축물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어 바닷가 내항 부잔교와 함께 진포해양공원에 영구히 정박한 위봉함 내부도 둘러볼 수 있으며, 수탈한 쌀을 저장했던 미곡창고인 장미공영창고와 적산가옥이 있던 장미갤러리, 카페테리아로 변신한 옛 미즈상사 건물 등도 볼 수 있다.

특히 1908년 대한제국이 건립한 옛 군산세관(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은 서울역사, 한국은행 본점건물과 함께 국내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며 근대역사벨트화지구에 집중돼 있다.

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옛 조선은행과 옛 제18은행, 위봉함 등 인근 3곳의 근대건축물과 시설물들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통합관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 관람의 경우, 박물관은 외지인 기준 2000원(단체 20명 기준 1000원), 위봉함 1000원(단체 700원), 옛 조선은행과 옛 제18은행은 각각 500원(단체 300원)으로 총 35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통합관람권은 성인기준 3000원이며, 단체는 2000원이다. 관람객들은 인근 '박물관 바이(BUY)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 입장권을 제출하면 판매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근대역사문화와 경관지구의 또 다른 볼거리

군산의 주요 근대역사 콘텐츠들은 박물관을 중심으로 걸어서 20분 정도에 모두 위치해 근대역사문화와 경관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근대역사문화와 경관지구는 영화동, 월명동, 신흥동, 금광동으로 이어지는 데, 영화 '장군의 아들', '타짜'의 촬영지 신흥동 일본식가옥과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였던 초원사진관, 1930년대 풍을 살린 숙박시설 '고우당'을 거쳐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 동국사를 걸어서 돌아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군산에서 포목점과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던 일본인 가옥이었던 신흥동 일본식 가옥(국가문화재 제183호)은 'ㄱ'자 모양의 2층 가옥과 일본식 정



일제강점기 곡물 반출과 토지 강매를 위해 설립된 조선은행 군산지점.



군산 진포해양공원에 영구히 정박한 위봉함.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원이 있는 2층 가옥으로 영화 '장군의 아들', '타짜' 등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1930년대 근대건축물을 보수·정비해 숙박체험 시설과 카페, 식당 등으로 변신한 '고우당'은 일대가 근대역사체험공간으로 조성됐다.

군산부윤(현 군산시장) 관사를 거쳐 발걸음을 옮기면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 동국사(국가문화재 제64호) 가는 길이 나온다. 동국사는 대웅전과 승려들이 거처하는 요사채가 북도로 연결되고, 지붕이 급경사를 이루는 일본식 건축양식의 사찰이다.

또한 근대역사문화와 경관지구에서는 100년 전통의 제과점과 60년 전통의 중국집을 비롯해 콩나물 해장국, 무국, 생선탕, 갈국 등 군산의 맛을 느껴볼 수 있다.

◇'구불길' 2시간 정도 걸으면 근대역사문화와 성립 군산에는 군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내는 도보여행길 '구불길'이 있다. 구불길은 비단강, 햇빛, 미소, 큰돌, 구슬뿔, 물빛, 달밤음, 탁류, 신지도, 새만금, 고군산 등을 주제로 11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이중 군산의 근대역사문화를 둘러볼 수 있는 길은 '탁류'길이다. 백을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배경지인 군산 원도심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남겨진 역사의 흔적과 선조들의 삶의 애환을 경험하며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길이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출발해 옛 군산세관, 월명동 주민센터, 수덕산공원, 군산서초등학교, 해망굴(흥천사), 월명공원 수시장, 구불길 탐방지원센터, 신흥동 일본식가옥, 초원사진관, 이성당, 고우당, 동국사, 선양동 해돋이공원, 정주사집문학비, 한참봉살개문학비, 개복동 예술의거리, 반해원, 군산진사작비, 옛 조선은행, 군산농특산물홍보갤러리, 미즈카페를 거쳐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오는 총 6km의 코스를 이용하면 2시간 내에 군산의 주요 근대역사문화와 콘텐츠를 모두 돌아볼 수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전북일보 이강모 기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야경.



1908년 대한제국이 건립한 옛 군산세관.

근대역사문화경관지구

장군의 아들·타짜 촬영지
신흥동 일본식 가옥
1930년대 숙박시설 고우당
국내 유일 일본식 사찰 동국사
100년 제과점·60년 중국집

11개 코스 '구불길'

비단강·미소·구슬뿔·달밤음·선조들 삶의 흔적 '탁류' 코스

2016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까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